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새로운 기회와 도약』

류종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www.kcca.or.kr kcca@kcca.or.kr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으면서도 곳곳에 기업경영에 매진해온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해는 골판지포장업계에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는 매우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 해가 될 것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헌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는 지난 하반기 골판지원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흉역을 치렀었는데 또 다시 연초부터 원자재가격 인상설을 접하면서 혼돈스런 상황이 재현되어 상심의 도가 클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제한제도 철폐, 시장원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적 수의계약제도를 금년 말로 폐지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시책 추진을 들어 포장재의 중금속 함유규제 등을 전면 실시한다는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는 역설적으로 경쟁심화 및 고비용 구조를 격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무포장 농산물의 대표적 상품인 배추와 무의 포장화 시책이 발표되고, 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 투표함이 골판지 소재로 바뀐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골판지포장업계의 성장 전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점적 거래관행에 시달려왔던 옥수수전분 거래와 관련하여 금년 4월부터는 옥수수전분 2만 1천 3백 톤을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서 골판지포장업계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하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즉,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면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내서 파이를 키우는 일과 골판지포장산업의 지속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업계간, 연관업계간의 적극적인 공조의 협력을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상생의 정신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경영에 있어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설령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고 하여도 희망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은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준비에서 오는 만큼, 골판지포장업이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을 견지하면서 함께 불황의 파고를 극복하자는 제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기업 환경을 타개하고, 경기회복기에 대응한

활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병술년의 조합 운영 방침을 『골판지포장산업 시장기반 확충의 해』로 정하고,

첫째, 정부의 지원 및 규제정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며,

둘째, 업계간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셋째, 품질기반 경쟁이 업계의 경쟁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다보면 골판지포장산업이 지속성장산업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경기회복기에 쉽게 적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그리고 관련업계 대표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해만큼은 골판지포장업계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성취의 결실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조합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과 골판지포장 관련업계 대표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